

19학년도 수능 생활과 윤리 zola 분석

Part I 총평

1. 총평

- (1) 강사로서 휴 다행 : 내가 가르친 부분에선 오개념 없다!
 (2) 너무 심심한데....6평·9평에 이어서 도전적인 문제가 없음...ㄱㄱ....전체적으로 작년 수능 느낌(기출 베낀 줄 알았음)
 (3) 생운 열공한 애들 열 좀 받을 듯.....
 (4) 백분위·표점 불리할 듯.....

[참고] 생운 1컷 변화

	6월	9월	11월 대수능
14학년도(첫 시행)	<u>45</u>	<u>47</u>	<u>47</u>
15학년도	<u>43</u>	<u>47</u>	<u>45</u>
16학년도	47	41	50
17학년도	44	43	47
18학년도	<u>45</u>	<u>47</u>	<u>50</u>
19학년도	45	50	50(예상)

2. 난이도는?

작년 수능과 비슷(수능 1컷 50, 2컷 47)
 (Zola가 문제 풀고 생각한) 1컷은 50점.

3. ebs는 잘 모르겠다!

ebs 연계율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음.

4. New Face를 찾아라!

없음.

Part II 바나나 찾기

1. 조선어 유저이면 맞출 수 있는 문제들(괄호 표시는 살짝 애매)

문제 번호 : 2, 4, (5), 6, (7), 10, 11, 15, (16), 19, 20

* 이외에도 지식형 문제이지만 일부 <보기>나 선지 중에는 독해로 해결 가능한 것들도 있음.

2. 바나나 선지들(What are you?????)

(1) 12번 ⑤ 안 골라서 틀린 존재 : 17~28%

⑤ 형벌은 사적인 보복이 아니라 공적인 정의를 실현해야만 한다.

☞ Zola Guide 3번 <보기> ↪ 설명한 글(게시글)에 있음. 확인해 볼 것.

(2) 18번 <보기> 다 들어간 ②, ④, ⑤를 골라서 틀린 존재 : 37~45%

다. 시민 불복종은 도덕적으로는 옳지 못하지만 불가피한 위법 행위이다.

☞ Zola Guide (1)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은 ‘현실에서 실천 가능한 윤리’를 배우는 과목임! 생윤에서 비도덕적인 것을 하라고 가르치겠냐???? 생윤이 뭔지 모르면서 롤스를 배우서 뭐 하려고???

(2) 아래 글 참고할 것. 댓글에 ‘하버마스’ 같은 분들이 공부 편하게 잘 하는 분들임!!! 이런 분에게 생윤은 꿀 과목임!!

2018-10-25 22:25:48 조회수 185

베카리아 형벌!!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18880513>

베카리아는 공리주의자로 알고있는데
형벌이 유용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그 형벌을 시행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나요??

하버마스 · 746207 · 10/25 22:54 · MS 2017
안나와요 안나와.. 설마 윤리과목에서 범죄자에게 형벌을 가하지 말자는 내용이 정답으로 나오겠어요..
좋아요 1 · 답글 달기 · 신고

gZ8zIYxTVtuN3c · 743106 · 10/25 23:00 · MS 2017
아ㅋㅋㅋㅋㅋ몬가 제일 간단 명료 설득력이 있네요 !??
좋아요 0 · 답글 달기 · 신고

Zola · 758219 · 10/26 00:21 · MS 2017
님 의견에 100% 공감함.....
좋아요 0 · 답글 달기 · 신고

(3) 아래는 오르비 쪽지로 온 글입니다. 생윤은 편하게 공부하면 진짜 꿀 과목임!!

선생님~ 올해 추석특강 수강했던 학생입니다 개념 인강 따로 수강한 적도 없는데 선생님 특강 + 특강에서 받은 자료 + 수능완성만 파서 이번 생윤 만점 받았어요. 킬러 파트(?) 자료 특히 도움 많이 됐습니다 감사해요 ^^~~

16시간 전

진짜 효율적으로 공부하셨네요...ㅋㅋ...축하드립니다...어찌보면 님이 입시의 승리자이심...^^;; 님은 입시 잘 준비하셨...열공+즐공=대박!!!

(3) 16번 선지 ②를 선택해서 틀린 존재 : 10~17%

② 전쟁 결과가 정의로워야 수행 과정도 정의롭다고 판정될 수 있다.

☞ Zola Guide 너네들 열심히 공부했는데, 수능 결과가 안 좋아. 그래서 엄마가 막 너네들 비난해. 그러면 기분 좋니, 나쁘니? 나쁘잖아! 왜? 결과를 중시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결과‘만’ 가지고 과정을 평가하는 것은 억울하니까! 그게 윤리야!!!

3. 낯선 선지 but 바나나

선지(문제)	연관 기출
5번 <보기> ㄱ 애국심은 개인의 이타심을 국가 이기주의로 전환시킨다.	19-6-13 제시문과 선지 개인으로서 각 사람들은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봉사해야 할 것과 서로 간의 정의를 확립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 그런데 집단으로서의 개인들은 스스로 집단의 힘이 명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따른다. 가장 높은 수준의 종교적 선의지를 지닌 개인들로 이루어진 국가도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 그들의 선의지는 조국에 대한 충성이라는 여과를 거쳐 국가 이기주의를 확대하는 경향까지 생겨나게 한다. ② 개인의 이타심과 애국심은 국가 간 정의로운 행동을 보장한다. (거짓) ④ 국가의 이기심은 도덕적 개인이 모인 사회를 비도덕적으로 만든다. (참)

☞ Zola Guide (1) 이번 수능 3번의 <보기> ㄱ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고 질문하시는 분들은 반성해야 합니다.

(2) 개념 공부(인강 들을 때) 기출을 병행해야 합니다. 인강 강사들의 개념 교재에 있는 사설 문제 푸실 필요 없구요(저도 인강 강사입니다), 처음부터 수능 기출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개념은 들었는데 기출은 보지 않았다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분들은 미쳤든가 공부하는 법을 진짜 모르는 분들이라고 봅니다. 인강 강사가 ‘생활과 윤리에서 충분조건, 필요조건은 수학이랑 달라’라고 하면 정말 그런 줄 아는 바나나일 뿐이라고 봅니다.(저의 생각일 뿐임. 그러니 여기에 대해 왈가왈부하진 마셈.)

<https://orbi.kr/00016843840>

Part III Zola 풀이

01 | 정답과 상관없이 메타 윤리학과 기술 윤리학에 대한 선지 공부는 해 둘 것.

02 | 독해로 가능함. 단 윤리학 이론들에 대한 개념 공부는 필요함. 이런 문제는 지식형으로 충분히 물을 수 있음. 갑은 덕 윤리(매킨타이어), 을은 공리주의(질적 공리주의, 밀).

03 | 니부어 문제임. 관련 문제는 19-6-13 문제임. 6평 문제가 이전까지 개념형으로 묻던 것과는 소재가 다른 생소한 문제였음.

13.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개인으로서 각 사람들은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봉사해야 할 것과 서로 간의 정의를 확립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 그런데 집단으로서의 개인들은 스스로 집단의 힘이 명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따른다. 가장 높은 수준의 종교적 선의지를 지닌 개인들로 이루어진 국가도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 그들의 선의지는 조국에 대한 충성이라는 여과를 거쳐 국가 이기주의를 확대하는 경향까지 생겨나게 한다.

- ① 사회 정의 실현에 정치적 강제 수단의 활용은 필수 요소이다.
- ② 개인의 이타심과 애국심은 국가 간 정의로운 행동을 보장한다.
- ③ 국가 간 이해 관계는 설득만으로는 합리적으로 조정되지 않는다.
- ④ 국가의 이기심은 도덕적 개인이 모인 사회를 비도덕적으로 만든다.
- ⑤ 집단 간 대립 상황에서도 개인은 비이기적 태도를 취할 수 있다.

04 | 밀의 자유론임. 오랜 만에 등장하였음. 기출을 보면 지식이 조금 더 필요함. 앞으로도 조금 주의해야 할 주제임.

05 | 갑은 도덕주의, 을은 심미주의. 이것으로 끝. 칸트의 예술관이 나오지 않는 이상 어려울 수 없는 주제임. 칸트의 예술관도 처음 나올 때는 어렵지 않을 것임.

06 | 독해면 됨.

07 | 엘리아데의 성현. 단 독해 내지는 대충의 '감'으로 풀림.

08 | 갑은 에피쿠로스, 을은 하이데거(실존주의). 특별한 지식이 없어도 풀 수 있음. 그래도 지식 공부를 살짝 해 두긴 해야 함. '살짝'이면 됨.

09 | 환경 윤리 문제 중에서는 상당히 쉬운 문제임.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임. 갑, 을, 병의 환경 윤리적 입장 혹은 사상가가 헛갈린다면 기본적인 개념 공부 가 덜 되었거나 제시문 읽는 능력이 부족한 것임.

ㄴ. 생명 공동체 '자체'에 신경쓰면 됨. 기출로 활용된 선지임. 참고로 Zola는 생명 공동체는 누구나 쓸 수 있는 용어이므로 생명 공동체 가지고 개념 논쟁 하지 마라고 하였음.

👉 Zola Guide

(1) 오르비 이용자는 아래 자료 참고.

[Zola 6] 생윤 환경윤리 Zola Guide(자료+동영상 강의)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17266908>

(2) 오르비 비이용자는 아래 동영상 참고할 것.

<https://www.youtube.com/watch?v=-HCcl7ICu4Q>

<https://www.youtube.com/watch?v=4V7dSd4xs-M>

10 | 독해로 풀림. 이 주제는 이제 지겹다.

11 | 가족 윤리는 동양 특히 유학 사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방심하면 털릴 수 있음. 이 문제는 잘 넘어갔지만 앞으로 조심해야 함. 유학 사상 공부 좀 해두면 좋음. 19번도 같은 주제임. 유학의 입장이 반영된 친구 관계임.

12 | 선지가 너무 쉽게 출제되었다. 선지 ㉔는 교육청이나 사설에서도 충분히 연습이 된 것임. 물론 기출만 해도 해결됨. 갑은 칸트, 을은 베카리아임. 을을 벤담이라고 풀어도 답은 달라지지 않음.

13 | 독해로 가능함. 갑은 마르크스, 을은 베버임. 을을 칼뱅이라고 풀어도 답이 달라지지는 않음.

14 | 처음에 볼 때는 <보기> ㄹ이 킬러가 될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다시 보니 킬러 정도는 아닌 듯.

ㄹ. 자유롭게 **이전**된 소유물은 모두 **교정**의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 노직의 소유 권리론은 3개로 구성됨. '취득(획득)', '이전(양도)', '교정'. 따라서 취득의 경우가 정의로운지를 따져봐야 함.

ㄱ. '능력에 따른 생산, 필요에 따른 분배'가 공산주의에 대한 개념.

ㄴ. 기출로 2번 출제된 선지임.

[18-9-11-ㄷ]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 분배는 정의롭지 않다.

[18-수능-9-ㄴ] 경제적 불평등은 모두에게 이익이 되어야 정당한가?

ㄷ. 여러 번 출제된 것일 뿐만 아니라 기본적 지식임. 아래 교과서 자료 참고.

[비상교육 교과서] 계약적 상황(원초적 입장)의 조건

1. 다른 사람의 이익에 상호 무관심
2. **사회가 어느 정도 경제 수준이 달성됨(자원이 적당히 부족)**
3. 무지의 베일
4. **경제학, 심리학 등의 일반적인 사실에 대해 인지함**
5. **개인은 모험을 싫어함**

15 | 독해임. 사탐인지 국어인지....

16 | 넘어갈게. 선지 ㉓을 왜 안 한거야??? 을 제시문 2줄에 '국가도 한 인격체'라고 나오는데!

17 | 이 문제 틀린 분들(21~35%)은 (1) 기본 개념 부족(그냥 지엽 선지 외우는 경우) 혹은 (2) 기출 제시문 공부 안 하는 것임.

(1) 기본 개념

을 → 싱어 → 공리주의 : 이득과 손실을 따짐.

④ '과도한 희생'은 손실임. 따라서 손실이 크다면 공리주의는 하지 않음! 끝!!!

(2) 기출 제시문

[16-0-19-을] 만약 도덕적으로 상응하는 중요한 것을 희생하지 않고,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러한 나쁜 일을 막아야 한다.

[16-수능-5-갑] 원조는 만인이 공정하게 분담해야 할 전 지구적 의무이다.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고 남는 소득이 있으면 소득의 1%를 기부하여 세계의 빈민을 도와야 한다.

[17-수능-20번-을] 타인은 굶주리고 있는데 우리가 사치품에 돈을 쓰고 있다면, 확실히 우리는 더 많이 기부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하여, 도덕적으로 상응하는 중요한 것의 희생이 없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들을 도와야 한다.

18 | 바나나 문제였는데 좀 갑갑한 정답률이 나왔음.

ㄷ에 대한 원전(번역본) 내용은 아래와 같지만 매번 이렇게 원전 확인을 하면서 정확한 지식·개념을 '아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봄.

[롤스, "정의론"] 시민 불복종은 ... 우리의 행위가 공동체의 정치적 신념에 충분한 도덕적 기초를 갖는 것임을 ...

참고로 19-9-19도 바나나 문제였는데 유사한 정답률이 나왔음. 뭔가 공부하고 문제 푸는 데 바나나가 해결안 되고 있다는 것임.

19 | 독해임. 그냥 넘어갈게.

20 | 독해임. 그냥 넘어갈게.

[참고 1] 메가스터디 추정 정답률

사회탐구영역생활과윤리, 20문항

번호	정답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1	2	3	4	5
1	4	96%	1%	1%	1%	96%	1%
2	5	92%	1%	1%	2%	4%	92%
3	5	54%	2%	3%	38%	3%	54%
4	5	95%	0%	1%	1%	3%	95%
5	2	96%	2%	96%	1%	1%	1%
6	1	96%	96%	1%	1%	1%	0%
7	2	83%	2%	83%	5%	3%	7%
8	2	92%	3%	92%	3%	1%	1%
9	4	74%	8%	3%	6%	74%	9%
10	2	96%	1%	96%	1%	1%	1%
11	1	97%	97%	1%	1%	1%	1%
12	5	83%	7%	6%	2%	2%	83%
13	1	85%	85%	2%	2%	2%	9%
14	1	63%	63%	5%	7%	19%	6%
15	4	92%	2%	1%	3%	92%	1%
16	3	80%	1%	10%	80%	3%	6%
17	4	79%	3%	2%	12%	79%	4%
18	3	57%	6%	3%	57%	10%	24%
19	1	91%	91%	2%	3%	1%	3%
20	3	95%	1%	1%	95%	1%	1%

1등급 50
2등급 47
3등급 44

[참고 2] ebs 추정 오답률 10

순위	문항번호	오답률*	정답	보기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1위	3번	55.10%	⑤	2.60%	5.20%	42.10%	5.20%	44.90%
2위	14번	54.20%	①	45.80%	7.00%	11.30%	26.00%	9.90%
3위	18번	53.50%	③	8.90%	4.30%	46.50%	14.40%	25.90%
4위	9번	39.90%	④	11.10%	4.30%	10.70%	60.10%	13.80%
5위	17번	34.90%	④	6.50%	2.90%	17.60%	65.10%	7.90%
6위	16번	31.10%	③	1.20%	16.50%	68.90%	5.60%	7.80%
7위	12번	27.50%	⑤	11.70%	9.20%	3.10%	3.50%	72.50%
8위	7번	27.10%	②	2.60%	72.90%	7.60%	5.10%	11.80%
9위	13번	23.40%	①	76.60%	2.80%	4.40%	4.30%	11.90%
10위	8번	15.10%	②	4.80%	85.00%	5.20%	3.20%	1.90%

1등급 50

2등급 47

3등급 44

* 오답률 = 100-정답률



왼쪽 위에 있는 애가 '미'
중앙에 있는 애가 '갹'임